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봉사하는 이들

가톨릭 영상 교리

(32) 천사

천사는 창조 때부터 구원 계획의 실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될 것을 알리는 사건을 그린 프라 안젤리코의 '주님 탄생 예고'. 출처=가톨릭굿뉴스

천사! 여러분은 '천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천사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때로는 찾기도 하고 때로는 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천사는 정말 존재할까요? 가톨릭교회는 천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사실 천사는 성경에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는 죄악이 창궐한 소돔을 멸망시킬 때 의로운 사람 롯을 구하고,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사악을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빼들었을 때 멈추게 하며, 하느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소명들을 알리고 예언자들을 돕는 존재로 나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 세례자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였으며,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경배하고 시중들며 용기를 북돋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것도 천사들이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심판을 도와드리게 될 이들도 천사들입니다.

나아가 교회도 천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주고 제자들의 복음 선포 활동을 도와주며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또 교회는 장례 때 "천사들이여, 이 교우를 천상 낙원으로 데려가시어…" 하면서 천사들의 전구를 청합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천사는 순수한 영적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뤄진 존재입니다.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죽음을 겪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긴 하지만 순수한 영적 존재이며 죽지 않습니다. 나아가 천사는 지성과 의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인격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천사는 '보이는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더 완전'한 존재이며, 하느님의 사신, 전령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결국,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느님 계획에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천사들은 "창조 때부터 구원 역사의 흐름을 따라, 줄곧 이 구원을 멀리서, 또는 가까이에서 알리고, 이 구원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332항)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천사의 이름은 성경을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천사입니다.

'누가 하느님 같으랴'라는 뜻의 미카엘 천사는 악마와 싸우는 천상 군대의 대장입니다. '하느님의 사람, 영웅, 힘'이란 뜻의 가브리엘 천사는 성모님께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파견되었듯이 하느님의 말씀과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며, '하느님께서 고쳐 주셨다'는 뜻인 라파엘 천사는 토빗의 눈을 고쳐주고 토비야의 길잡이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의 치유자, 길잡이의 천사입니다. 또 성경에 바탕을 둔 천사에 대한 믿음은 수호천사로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롯을 구하는 이야기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와 "주님의 천사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해 준다"(시편 34,8)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작은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마태 18,10)라고 말씀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천사들의 보호와 전구로 도움을 받습니다. 모든 신자의 곁에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보호자이자 목자인 천사가 있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336항)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천사들의 도움을 청하여 하느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천상의 천사들과 이루는 친교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QR코드를 찍으면 '가톨릭 영상 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톨릭평화방송 제작

금주의 성인

성 니콜라오 주교 (12월 6일)

270?~341년쯤, 리키아 출생, 주교, 산타클로스

니콜라오 성인은 대중에게 산타클로스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성탄절 때마다 어린이에게 베푼 자선과 사랑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신터클레스(Sinter Claes)라고 불린 성인이 본격적으로 산타클로스(Santa Claus)로 알려진 건 네덜란드계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입니다. 이들은 성인의 축일에 어린이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관습을 소개하고, 이를 성탄 전야 행사와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산타클로스의 붉은색 옷도 사실은 성인이 입던 빨간색 주교 복장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성인은 오늘날 지중해 연안 튀르키예 남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리키아 지방의 항구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인의 생애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인은 전설과 비공식 전기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그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성인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에 헌신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더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사제가 될 결심을 할 정도로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성인이 사제품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미라의 주교가 선종했습니다. 주교들은 후임을 찾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밤,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침 성당에 맨 먼저 들어오는 '니콜라오'라는 자를 뽑아라." 실제 다음 날 아침 성당에 기도를 하러 갔던 성인은 영문도 모른 채 주교로 축성됐습니다. 그러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그리스도교 박해가 시작되면서 성인은 10여 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성인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신앙의 자유가 선포된 뒤에야 풀려나 본격적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성인의 선행에 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어떤 아버지가 가난 때문에 세 딸의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지 못해 매춘부로 넘겨야 할 곤경에 처했을 때 일입니다. 이를 안 성인은 몰래 창문으로 돈을 넣어 주어, 위기를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또 기근이 든 어느 해 고약한 백정이 아이 셋을 살해한 후 소금에 절여 먹거리로 팔려고 하자 성인이 나서 어린이들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기적도 있습니다. 기근 당시 식량을 가득 실은 여러 척의 배가 폭풍우에 밀려 미라 해안으로 떠밀려왔습니다. 성인은 각 배의 선장에게 식량을 기증해 달라고 간청해 굶주리는 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출항 후에 식량을 살펴본 선원들은 그 양이 이전과 비교해 전혀 줄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이 외에도 남의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사형에 처할 뻔한 세 명의 청년을 구해주었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꿈에 나타나 모함을 받은 고관들을 위기에서 건져낸 일도 있습니다. 또 물에 빠진 선원들을 여러 번 기적적으로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성인은 교회 미술에서 주로 한 손에 세 개의 황금 구슬이 놓인 성경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성인이 행한 선행과 기적을 의미합니다. 또 비슷한 이유로 어린이와 누명 쓴 죄수, 폭풍우에 갇힌 뱃사람, 항해사, 어부, 여행자 등 다양한 계층 사람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의 그룹웨어 Since 1999
더 지웨어 THE GWARE

결재에서 소통까지
더 지웨어를 경험해 보세요.

전자결재 전자우편 근태 휴가 협업 프로젝트 게시판 일정관리 문서관리 회의실예약 보안 & 설정 메신저

* 2022년 오픈 사용중 *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2,000여 기업이
THE GWARE로 일하는중!

남양 CLIO PROFESSIONAL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Asia Culture Center Foundation
LEMONA 경남제약㈜ Kyung Nam Pharm.Co.,Ltd. kt cs 한림대학교 HALLYM UNIVERSITY
Mr.Pizza Kwangdong 광동제약 명지병원 MYONGJI HOSPITAL
bhc OLIVE YOUNG 한국특허정보원

검색창에서 인에이지 를 검색하세요.

(주) 인에이지
www.enage.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H business Park D동 803, 804, 805호
문의 : sales@enage.com 전화 : 1600-4730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오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성 요셉께 바치는 기도)

홀리엔젤
Holy angel
010-8006-0681
www.holyangel.co.kr

* 성모상 함과 성 요셉 함은 부부함입니다.
* 표기된 가격은 카드세액, 부가세 별도가입니다.

성모상 함 60만원

성 요셉 함 60만원

천주 당초함 25만원

14처함 20만원

천주 부활함 17만원